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횡혈식석실묘의 확산

황 종 현*

목 차

- I. 머리말
 - II. 충주지역
 - 1. 충주 누암리고분군
 - 2. 충주 하구암리고분군
 - 3.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의 성격
 - III. 여주·서울지역
 - 1. 여주지역
 - 2. 서울지역
 - IV. 한강유역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특성과 의미
 - V. 맺음말
-

*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수용과 전개」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접수일: 2020.8.31. 심사완료일: 2020.11.7. 게재확정일: 2020.11.18.

국문요약

신라는 진흥왕대 이후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 한강유역으로 진출한다. 한강유역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중요한 거점이었던 충주, 여주, 서울지역에 小京과 新州를 설치하고 왕경인을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충주, 여주, 서울지역에서는 횡혈식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고분군이 다수 발굴되었는데, 특히 서울지역 횡혈식석실묘의 경우 축조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한 횡혈식석실묘의 입지, 고분의 구조적인 속성, 출토유물 등을 신라 왕경의 것과 비교검토하였다. 또 최근 서울 석촌동·방이동고분군과 인접한 하남 감일동고분군에서 발굴된 한성기 백제 횡혈식석실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충주지역과 여주지역의 경우 고분군의 입지와 군집도, 출토유물에서 신라 왕경인 경주의 횡혈식석실묘와 유사성이 농후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최근 발굴된 방이동고분군과 하남 이성산성 주변 금암동고분군, 덕풍골고분군 횡혈식석실묘가 백제 한성기 횡혈식석실묘로 밝혀진 하남 감일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와 고분의 구조, 출토유물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충주지역의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 여주의 매룡리고분군, 한강유역의 방이동고분군과 하남 이성산성 주변 고분군은 6세기 중엽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축조한 신라 횡혈식석실묘로 판단된다.

Ⅰ 주제어 Ⅰ

신라, 횡혈식석실묘, 한강유역 진출, 지방, 확산

I. 머리말

신라는 중고기 이전부터 왕경의 북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동해안 교통로를 따라 북진하였고, 낙동강 수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가야지역으로 남진을 시도하였다. 지증왕과 법흥왕대에는 실직주 설치, 금관국 복속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진흥왕은 본격적인 대외 팽창을 시도하였다(尹星鎬 2017). 특히 진흥왕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위한 교통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외교를 위해 한강유역 진출에 많은 공을 들였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로에 해당하는 남한강 상류의 충주 지역과 남한강 하류에 위치하는 여주지역을 영역화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궁극적 목적인 한강유역의 안정적인 통치와 지배를 위해서는 옛 백제의 왕도였던 지금의 서울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강유역을 두고 고구려, 백제와의 치열한 전투와 외교전을 통해 신라는 6세기 중엽 남한강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553년(진흥왕 14)에 한강유역에 新州가 설치되었고, 558년(진흥왕 19년)에 충주지역에 국원소경을 설치하고 왕경의 귀족자제와 6부 호민을 이주시킨 기록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을 말해주는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자료가 바로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분포와 산성이라 할 수 있다. 산성의 경우 최근 경기, 충청지역의 활발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의 중원지역과 한강유역 진출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皇甫慶 2009; 尹星鎬 2017).

산성과 함께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이후 축조한 횡혈식석실묘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김진영 2007a, 2008; 皇甫慶 2007, 2017; 李承勳 2009; 김지현 2017). 그런데 이러한 한강유역 석실묘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락동·방이동고분군 횡혈식석실묘 주인공 문제와 같은 오랜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인 충주지역과 한강유역 횡혈식석실묘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강유역 횡혈식석실묘의 축조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발굴된 한성기 백제 석실묘와 비교검토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충주지역

진흥왕은 540년에 즉위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법흥왕비의 섭정을 받았으며, 551년(진흥왕 12)에 와서야 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진흥왕은 본격적인 대외정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삼국사기』에는 551년 거칠부에게 명하여 고구려 영역이었던 죽령 이북 고현 이남 10개 군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건립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단양의 적성비 건립시기도 중원지역 진출 시기인 550년 전후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53년(진흥왕 14)에는 백제가 회복한 한강 하류의 6군을 정복한 후 이곳에 新州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120년간 유지되었던 나제동맹은 파기되었다. 557년(진흥왕 18)에는 고구려의 국원성이 있던 충주지역에 국원소경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558년에는 왕경의 귀족과 6부 호민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신라가 중원지역을 가장 먼저 정복하고 왕경 귀족과 6부 호민들을 이주시킨 데에는 이 지역이 신라 입장에서 북방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이 지역이 풍부한 철 생산지였고, 둘째, 남한강을 이용해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하며 군사적 요새가 되는 지정학적 조건이 유리했으며, 셋째, 신라의 영토로 볼 때 동서남북의 중앙에 해당하며 남한강 유역에 넓은 충적평야를 끼고 있어 자원이 풍부하였다(국립청주박물관 2012).

이후 신라는 국원소경을 757년 중원경으로 변경하고 중원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지속시켰다. 남한강변의 충주 탐평리유적에서는 국원소경과 중원경의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수로와 도로, 적심 건물지, 수혈주거지 등이 발굴되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황인호 2013).

국원소경의 치소가 있었던 탐평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충주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은 558년 신라 왕경의 귀족과 6부 호민들이 이주해 와서 조영하기 시작한 신라 고분군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주목받았다(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이 장에서는 신라 중원지역 진출의 면모를 보여주는 충주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두 고분군은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 탐평리유적을 중심으로 누암리고분군은 남쪽에 하구암리고분군은 북쪽에 각각 위치한다. 두 고분군은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모두 산록의 남쪽 능선상에 위치하는 座北朝南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표 1. 신라 중고기 주요 지방통치와 정복활동

| 연 도 | 지방통치와 정복활동 내용 |
|---------------|------------------------|
| 505(지증왕 6) | 실직주(삼척) 설치 |
| 512(지증왕 13) | 하슬라주(강릉) 설치 |
| 525(법흥왕 12) | 사벌주(상주) 설치-대아찬 伊登 군주임명 |
| 532(법흥왕 19) | 금관가야 항복 |
| 550년경(진흥왕 11) | 단양 적성비 건립 |
| 551(진흥왕 12) | 죽령 이북 고현 이남 10군 정복 |
| 553(진흥왕 14) | 한강하류 장악, 新州 설치 |
| 554(진흥왕 15) | 관산성 전투 |
| 555(진흥왕 16) | 비사벌주(창녕) 설치 |
| 557(진흥왕 18) | 국원소경(충주) 설치 |
| 557(진흥왕 18) | 신주 폐지, 北漢山州 설치 |
| 557(진흥왕 18) | 사벌주 폐지, 甘文州 설치 |
| 558(진흥왕 19) | 국원소경 귀족자제와 6부 호민 이주 |
| 561(진흥왕 22) | 창녕 진흥왕 척경비 건립 |
| 562(진흥왕 23) | 대가야 복속 |
| 568(진흥왕 29) |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건립 |

1. 충주 누암리고분군

충주 누암리고분군은 국원소경의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한강변의 탐평리유적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해발 200m 내외의 비교적 낮은 산록의 남쪽 능선상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1). 고분군의 입지는 왕경과 매우 흡사한데, 경주의 선도산지구 고분군을 비롯한 산지의 능선과 사면에 입지하는 왕도의 고분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누암리고분군이 위치하는 지역이 분지가 아니어서 고분군이 넓은 평야를 조망하고 있지 않은 점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고분군은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1989년 처음 발굴조사를 실시(문화재연구소 1991)하여 횡혈식석실묘 2기가 조사되었다. 그 후 1990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고(문화재연구소 1992), 횡혈식석실묘 4기가 발굴되었다. 또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1991년 3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횡혈식석실묘 17기가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2기씩 4기의 횡혈식석실묘를 발굴하였다(그림 2).

그리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09)에서 누암리고분군에 대해 정밀 지표조사한 결과 고분군은 7개 구역으로 분산되어 분포<그림 3>하고 있으며, 모두 234기의 봉토분이 확인되었다. 1991년 지표조사에서는 242기가 확인되었으나 그간 과수원 개간 등으로 많은 고분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충주 하구암리고분군

충주 하구암리고분군은 누암리고분군과 함께 중원지역 신라 황혈식석실묘의 핵심적인 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 국원소경의 치소로 추정되는 탐평리유적에서 북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흘러내린 여러 가지능선의 정상부와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에서는 8개 구역에서 모두 469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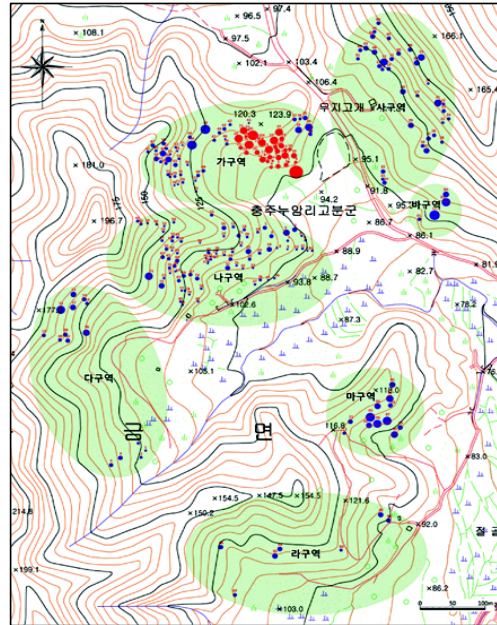


그림 3. 충주 누암리고분군 분포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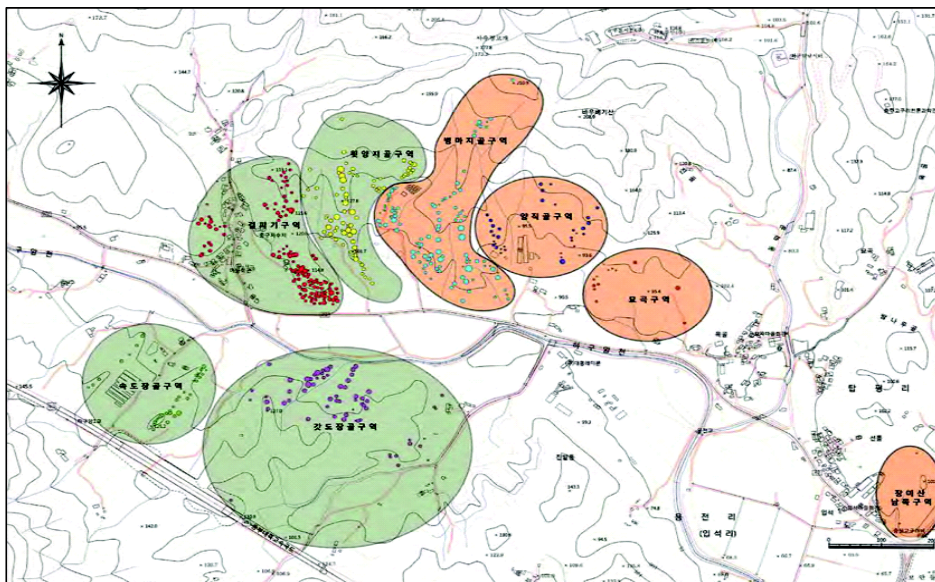


그림 4. 충주 하구암리고분군 분포도(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병마지골에 위치한 25호<그림 5>, 27호, 28호분 등 3기를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구간에서도 석실묘 5기와 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고, 하구암리 산1번지 공장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석실묘 35기와 석곽묘 31기 조사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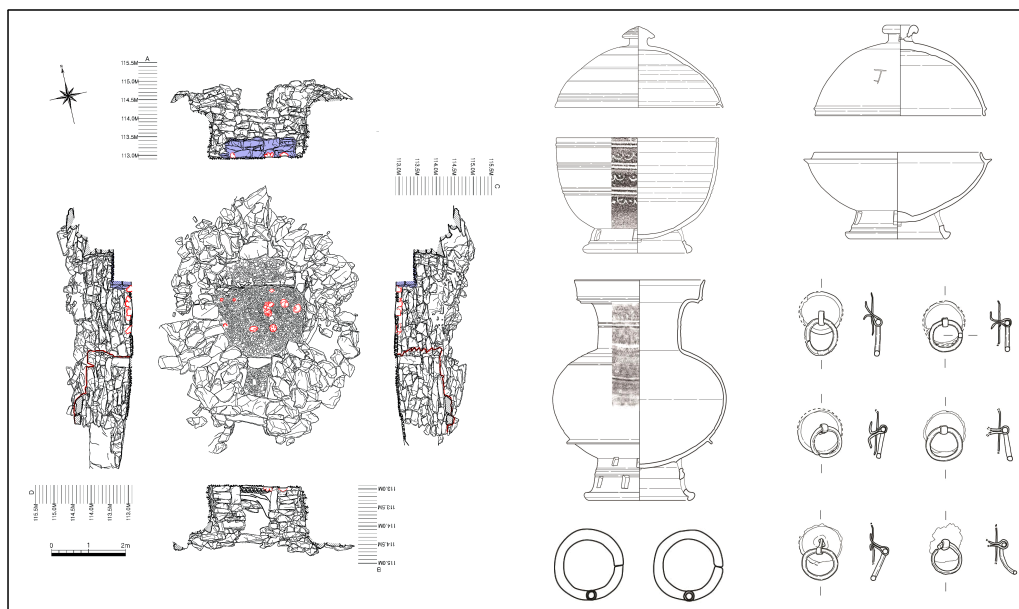


그림 5. 충주 하구암리고분군 병마지골 25호 석실묘와 출토유물

3.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의 성격

먼저 충주지역 횡혈식석실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왕도의 양상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6세기 전반 신라 왕도에 도입된 횡혈식석실묘는 빠르게 신라의 주된 묘제로 정착한다. 5세기 마립간기 동안 축조된 적석목곽묘는 왕경의 중심에 해당하는 평지의 대릉원지구에 조영되었으나, 6세기 들어 횡혈식석실묘는 왕경의 주변 산지로 묘역을 이동하여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때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닌 서쪽의 선도산지구와 송화산지구, 북쪽의 소금강산지구, 동쪽의 명활산지구, 남쪽의 망산지구, 건천의 말암산지구 등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그림 6>. 또 각 산지에 분포하는 횡혈식석실묘는 능선의 정상부와 주능선에 대형 고분이 열을 지어 분포하고 비교적 소형 석실묘와 석곽묘는 경사면에 입지한다. 그리고 대형 석실묘의 경우 대부분 고분군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보거나 멀리

왕궁을 조망하면서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라 왕도 주변 산지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횡혈식석실묘 유형은 ‘산지 군집형’ 횡혈식석실묘로 분류할 수 있다.

횡혈식석실묘의 분포 밀집도와 고분의 수, 고분의 규모, 출토유물 등을 통해 왕도 내에는 크게 6개의 산지 군집형 횡혈식석실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분간의 위계 차이가 인정된다. 이 중 석실묘의 규모, 현실의 구조, 출토유물 등 모든 면에서 서악동고분군과 장산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 선도산지구와 충효동고분군이 위치하는 송화산지구 고분군이 월등하다. 다음으로는 용강동과 동천동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 소금강산지구 고분군, 보문동고분군의 명활산지구 고분군, 방내리고분군의 말암산지구 고분군 등이 비슷한 규모의 위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울동고분군이 분포하는 망산지구 고분군은 봉분의 크기, 현실의 내부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다른 고분군에 비해 다소 위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황중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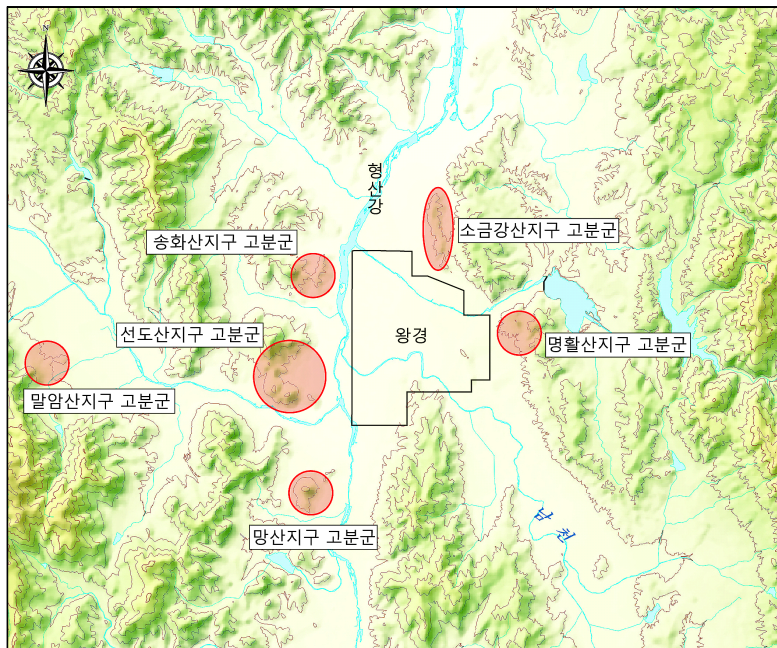


그림 6. 신라 왕도 ‘산지 군집형’ 횡혈식석실묘 분포도

충주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의 분포와 입지양상은 앞서 살펴본 중고기 신라 왕도의 ‘산지 군집형’과 매우 흡사하다. 먼저 산지의 능선과 사면에 고분이 입지하고 있으며, 석실묘 조영 주체에 따라 특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산지에 밀집 분

포하는 특징이 있다. 즉 왕경의 신라 6부가 왕도 주변 특정 산록을 채택하고 각각 자신들만의 별도 고분군을 조영한 ‘산지 군집형’ 과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원소경 내에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은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고분인데,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탑평리유적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묘역을 달리하여 각각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표조사에서 누암리고분군은 234기가 조사되었고, 하구암리고분군은 469기가 조사되어 하구암리고분군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분군 간의 위계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고분군에 분포하는 고분의 봉분의 직경을 비교한 결과 누암리고분군이 하구암리고분군에 비해 훨씬 많은 대형분이 유존하고 있어 누암리고분군이 중심 고분군일 가능성은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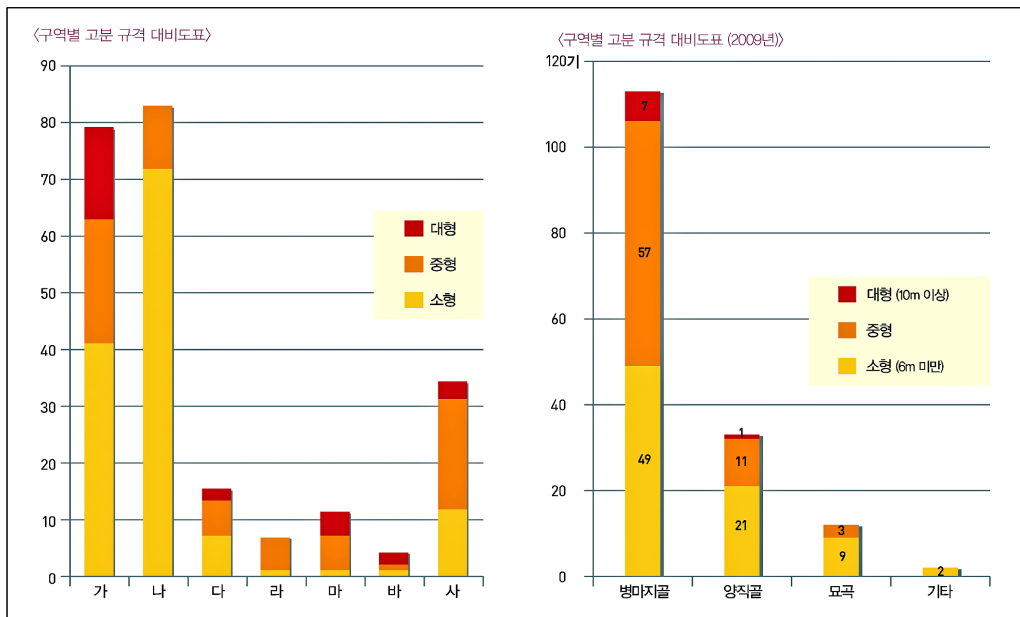


그림 7.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의 고분 규격(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9)

이러한 묘역의 분리현상은 왕도에서 6부가 각자 독자적인 묘역을 조성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삼국사기』에 진흥왕이 557년(진흥왕 18) 충주지역에 국원소경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558년에는 왕경의 귀족과 6부 호민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왕경으로부터 소경으로 사민 된 왕경의 귀족과 6부의 호민들은 비록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왕경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6부의 귀족과 호민이 옮겨왔다고 가정했을 때 왕경과 같이 6개 지구에 고분군이 분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누암

리와 하구암리에만 고분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국원소경은 왕도와 같이 넓은 영역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주해 온 왕경인의 수가 많지 않아 왕도와 같이 부별로 6개 지구의 고분군을 각각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6부 호민이 이주해 왔다고 하여 6개의 부 소속 주민들이 동일한 규모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충주지역에 6개 지구의 고분군이 존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는 6세기 중엽 이후 축조되기 시작하여 7세기 전반까지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오재진 2008). 석실묘의 초축 시점이 국원소경 설치와 왕경인이 이주해 온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고분군은 왕경에서 이주해 온 신라 왕경인이 축조한 횡혈식석실묘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 축조세력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횡혈식석실묘가 가진 속성과 출토유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횡혈식석실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인 현실의 크기, 평면형태, 연도의 위치, 현문시설, 시상대의 높이 등 석실묘의 구조적인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현실의 크기<표 2>는 현실면적 6㎡ 이상의 대형급이 12기로 전체 조사된 67기 중 18%를 차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이상 6㎡ 미만의 중형급이 49기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4㎡ 미만의 소형급은 6기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형급과 중형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이와 같이 대형과 중형의 횡혈식석실묘가 소형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고분군 축조집단의 위계가 상당히 높았음을 말해준다.

표 2. 경주지역 석실묘 현실의 규모 분류

| 연구자 | 소 형 | 중 형 | 대 형 |
|----------|---------------------|--------------------------------|---------------------|
| 이해정 | 4㎡미만 | 4㎡이상~6㎡미만 | 6㎡이상 |
| 박진혜 | 2㎡미만 | 2㎡이상~6㎡미만 | 6㎡이상 |
| 한빛문화재연구원 | 170㎝미만 (2.89㎡미만) | 170이상~260㎝미만 (2.89~6.76㎡미만) | 260㎝이상 (6.76㎡이상) |
| 필자 | 4㎡미만 | 4㎡이상~6㎡미만 | 6㎡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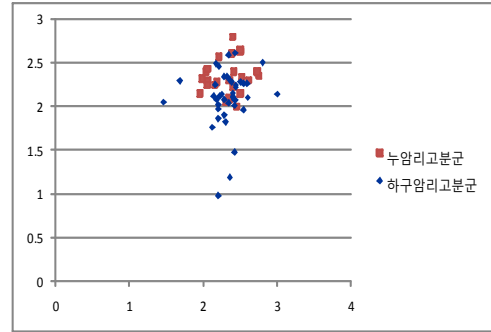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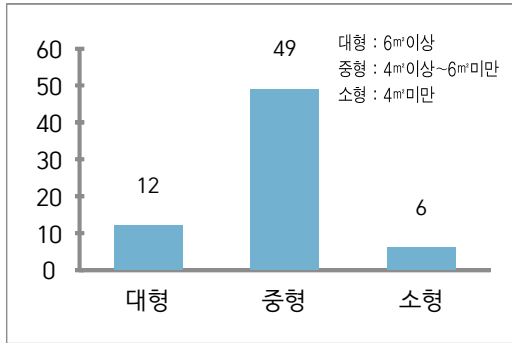


그림 8. 충주 누암리·하구암리고분군 현실크기 그림 9. 충주 누암리·하구암리고분군 현실크기 분포도

그런데 충주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의 현실 크기를 비교했을 때 누암리고분군은 중대형 위주의 현실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하구암리고분군의 경우 소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이러한 사실은 누암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위계가 하구암리고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실의 평면형태도 방형 현실을 가진 석실묘가 59기로 88%에 달하며, 종장방형 6기와 횡장방형 2기 등 장방형 현실이 8기로 12%에 불과하여 방형 현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라 왕도의 현실 평면형태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충주지역이 방형 위주의 현실로 구성되어 있음이 더욱 뚜렷해진다(그림 10). 따라서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 횡형석실묘를 축조한 세력은 상당히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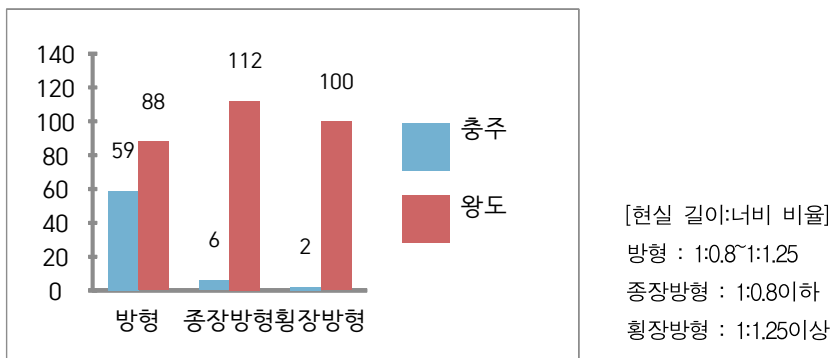


그림 10. 충주 누암리·하구암리고분군과 왕도의 현실형태 비교

연도의 위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64기 중 중앙연도식이 11기, 좌편연도식이 15기, 우편연도식이 38기로 확인되었다. 중앙연도식이 17%이며 좌우편재식이 73%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우편재식이 좌편재식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왕도인 경주의 경우 좌편재식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우편재의 경우 대략 2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그림 11>.

현실의 시상대 높이도 고분의 위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데,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의 경우 20c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시상대를 축조하였고

대형급의 경우 40~50cm의 고시상대도 확인된다. 다만 왕도의 최고 위계 석실묘에서 보이는 탁자식 시상은 보이지 않는다.

현문시설 또한 횡혈식석실묘의 위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으로(박진혜 2014), 충주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의 경우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서는 왕경의 경주 서악동고분군이나 충효동고분군 등에서 볼 수 있는 완비된 현문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실 내 시상대 혹은 관대시설 또한 경주 서악동고분군의 석침총이나 노서동고분군의 쌍상총과 같은 완벽한 수준의 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된 횡혈식석실묘로 보았을 때 충주지역에는 왕도의 최고 위계를 가진 인물은 없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는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물을 통해 고분의 축조 시기나 피장자의 사회적 위계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횡혈식석실묘의 특성상 도굴의 피해를 입기 쉬워 축조당시의 유물 부장맥락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석실묘에서 누암리형 대금구<그림 12>와 금제이식, 유리구슬, 곡옥 등 금공품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성격과 위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김종구 2017). 특히 누암리형 대금구는 법흥왕의 율령반포 이후 대략 6세기 중엽부터 진덕왕대 당나라식 공복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약 100년 동안 신라 官服을 구성하는 허리띠의 부속품으로 기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이한상 2004)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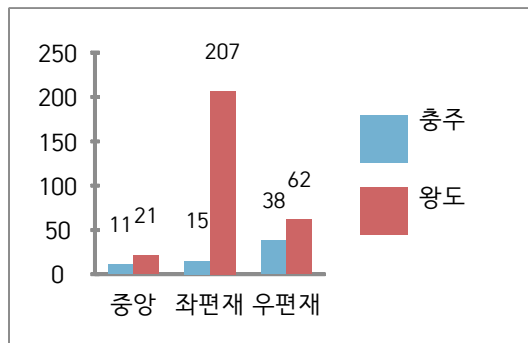


그림 11. 충주 누암리·하구암리고분군과 왕도의 석실묘 연도위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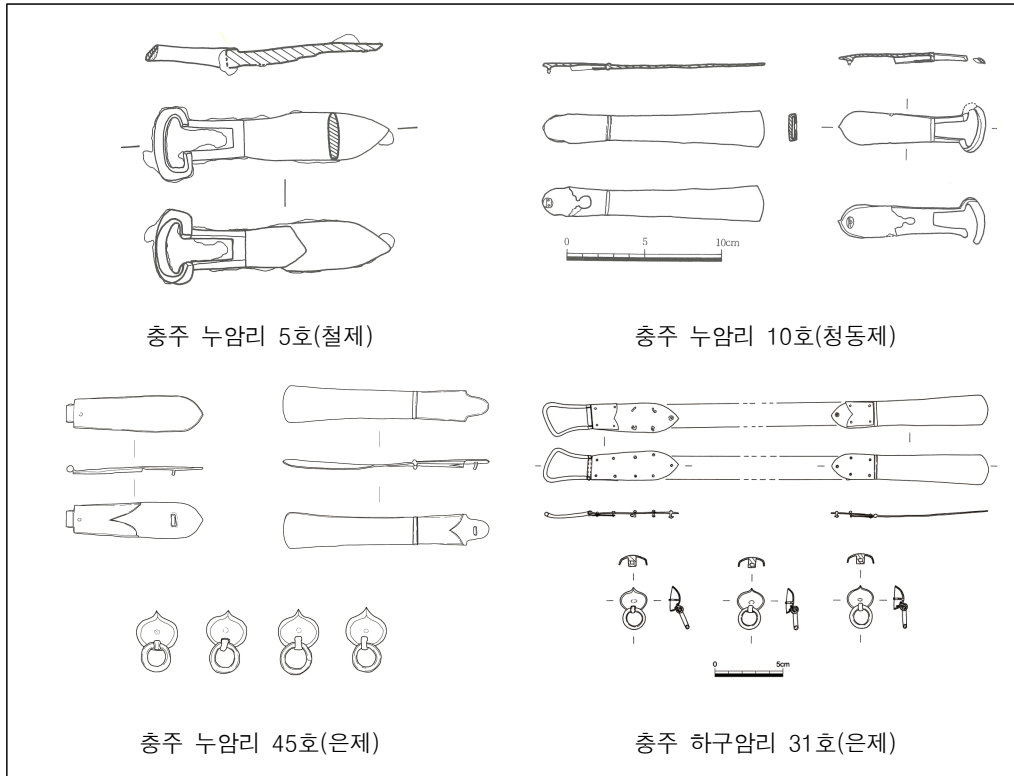


그림 12. 충주 누암리·하구암리고분군 출토 대금구

결론적으로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은 석실묘의 현실 크기에 있어 대형급과 중형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평면형태 또한 방형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연도의 위치도 중앙연도식이 왕도인 경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황혈식석실묘의 속성을 검토한 결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은 왕도인 경주지역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계를 가진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완비된 현문시설을 갖춘 석실묘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실 내 시상대 혹은 관대 시설에 있어 왕경의 가장 높은 수준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점은 신라 최고 위계의 고분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두 고분군은 국원소경으로 이주해 온 왕경의 귀족과 6부의 호민이 축조한 고분군으로 판단되며, 『삼국사기』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충주지역 석실묘는 현실의 규모와 형태, 벽석의 축조방법, 연도의 위치, 시상의 형태 등에서 함천 저포리고분군 석실묘와 유사성이 많아 그 계보를 함천지역과 연결시킨 건

해가 있다(오재진 2008).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에서 관고리와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이 사용된 점과 누암리형 대금구가 출토된 점이 합천 저포리와 유사하여 두 지역 사이의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한 후 우륵을 충주지역에 안치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하여 대가야 지배층을 국원소경으로 이주시켰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충주지역에 가야지역 석실묘가 조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석실묘의 제속성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 왕도에서 조사된 것과 다를 것이 없고, 관정과 관고리¹⁾의 사용과 누암리형 대금구도 왕도 내 석실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합천 저포리 횡혈식석실묘는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한 후 왕도의 석실묘가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Ⅲ. 여주·서울지역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은 문헌기록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한강유역은 대 중국 교류의 거점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중요한 지역이었다. 한강 하류지역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한때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551년 백제는 대대적인 공격으로 고구려를 물리치고 6군을 빼앗아 한수 이북지역까지 수복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신라는 553년 고구려와의 외교적인 협약을 통해 한강 하류 유역을 별다른 전쟁도 없이 정복하였다(주보돈 2006). 신라는 이곳에 新州를 설치하고 김무력을 군주로 파견하였다. 이듬해에 백제는 가야세력과 연합하여 신라가 추풍령을 넘어 한강 하류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성왕이 전사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나제동맹은 완전히 깨지고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대중국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인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尹星鎬 2017).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적극적인 고고학적 자료는 신라가 축조한 횡혈식석실묘와 산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강유역은 신라가 6세기 중엽 장악한 이후에도 고구려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축성이 활발하였고, 다른

1) 신라영역 초기 석실묘에 해당하는 포항 대련리고분군과 왕도의 보문리 합장분 횡혈식석실묘에서는 관고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왕도 산지군집형 석실묘에서 많은 수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방내리 석실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어느 지역보다 신라 황혈식석실묘와 신라 산성이 조합되는 곳이 많다. 최근 한강유역과 경기도 일원에서 신라 고분과 산성에 대한 조사가 축적되어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강유역 신라 황혈식석실묘에 대한 연구는 서울 가락동·방이동 고분군의 축조주체에 대해 백제 석실묘인지 신라가 축조한 석실묘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최근에는 한강유역에서 신라 고분이 꾸준히 조사되면서 석실묘의 계통(강봉원 2000; 김진영 2007b; 홍보식 2009; 김지현 2017), 수용경로(김진영 2007b), 고분·성곽·불교유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皇甫慶 2009) 등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지금까지 발굴된 한강유역과 경기도 일원 신라 황혈식석실묘 중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 규명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고분군은 수용경로와 분포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수용경로에 대해서는 내륙로와 남한강을 이용한 경로로 구분한 연구가 주목된다. 즉 한강본류역은 추풍령을 넘어 청원→청주→진천→안성→화성→용인을 통하는 내륙로를 상정하였으며, 남한강유역은 상주→문경→계림령→충주→여주로 이어지는 경로와 영주와 예천, 안동지역을 기점으로 죽령을 넘어 단양을 거쳐 충주와 여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김진영 2007b). 또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분포도 한강 본류역과 남한강유역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두 지역은 수계 상 하나의 지역권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양 지역 간 광주산맥이 가로질러 지형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김진영 2007b). 한강 본류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되는 지점인 파주 교하일대, 한강 본류 상류의 서울 서남부지역과 하남일대, 탄천 상류의 용인 서북지역 등 크게 3개 권역에 신라 석실묘가 분포한다. 남한강유역은 상류의 충주지역과 하류의 여주지역 등 크게 2개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고분군이 위치하는 지역은 교통로에 해당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한강유역 방어와 지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다(김진영 2007a).

따라서 한강유역 신라 황혈식석실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남한강 유역의 여주지방과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 후 가장 먼저 설치한 新州의 치소가 있었던 한강 본류 상류, 즉 가락동·방이동과 하남시 일원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남한강 중류지역의 신라 석실묘 고분군으로 알려진 여주 매룡리고분군과 한강유역 중 가장 핵심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가락동·방이동고분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축조 주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굴된 하남 감일동·감일동 한성기 백제 석실묘와의 입지, 고분의 구조, 출토유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여주지역

남한강 중류지역에 위치하는 여주 매룡리고분군²⁾은 황학산(黃鶴山, 175.3m)에서 북쪽으로 뻗은 여러 줄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해발 80m 내외의 가지능선 상부와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정밀지표조사 결과 200기에 가까운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畿甸文化財研究院 2000a).

고분군은 남한강의 서안에 위치하며, 주로 남쪽으로 뻗은 능선 상부와 사면에 조영된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양상은 충주 누암리고분군과 매우 흡사하다(그림 13). 지금까지 여주 매룡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몇 차례 이루어져 횡혈식석실묘 6기, 횡구식석실묘 36기, 석곽묘 등이 조사되었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로만 보면 매룡리고분군은 횡구식석실묘가 주를 이루는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일본인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여주군 상리 1호분과 2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그런데 노모리 켄(野守健)이 1927년 매룡리 2호와 8호분으로 다시 발굴하게 된다. 이 2기의 고분은 한동안 1916년 이마니시 류가 조사한 고분과 별개의 다른 고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자료 분석을 통해 동일한 고분으로 밝혀져 지금은 상리 1호분과 2호분이 매룡리 2호분과 8호분으로 수정되었다(畿甸文化財研究院 2000a).

여주 매룡리 2호분과 8호분은 모두 횡장방형 현실평면에 중앙연도식 횡혈식석실묘이다. 매룡리 2호분 현실의 규모는 길이 224cm, 너비 363cm, 높이 227cm 정도이다. 현실 내에서는 좌측과 우측에 높이 40cm 정도의 시상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 3개, 우측에 2개의 두침석이 북쪽 벽에 나란히 놓여있다. 서쪽 시상대 위에서는 금동제 태환이식 1쌍과 도자 2점이 출토되었다.

여주 매룡리 8호분 현실의 크기는 길이 197cm, 너비 309cm로 매룡리 2호분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다. 현실 내에는 서벽과 동벽에 높이 40cm 정도의 시상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서쪽 시상대 위에서는 두침석 2점이 확인되었다.

2) 매룡리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여주시 상리와 매룡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어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에는 상리·매룡리고분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재 명칭(경기도 기념물 제180호)을 따라 매룡리고분군으로 부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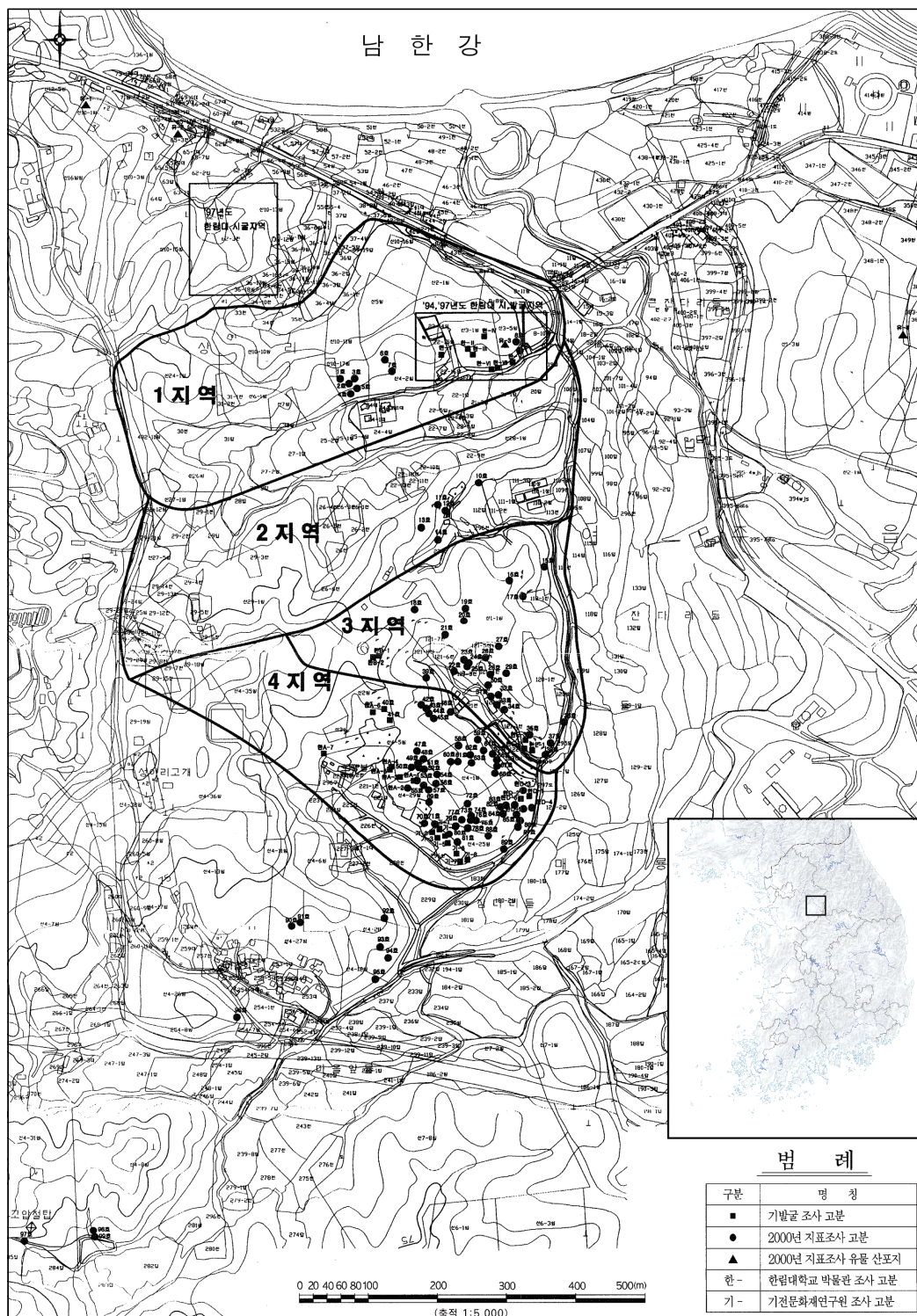


그림 13. 여주 상리·매룡리고분군 분포도(繼甸文化財研究院 2000a)

여주 매룡리 2호와 8호<그림 14>는 모두 현실의 평면형태가 횡장방형이며 연도가 중앙에 나있고, 시상대에서 석침이 사용된 점에서 왕경의 서악동 석침총과 유사하다. 이 석실묘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매룡리고분군의 피장자 일부는 왕경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홍보식 2009). 또 시상대의 높이가 50cm로 비교적 높아 백제나 가야지역보다는 신라 석실묘와 연관된 것으로 보면서도, 고구려적 요소가 짙은 영주 읍내리 벽화분과의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신라 요소와 고구려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고분으로 본 견해도 있다(金晸鎭 1999). 또 여주 매룡리, 하거리, 상리고분군 석실묘는 낙동강 중하류지역에 분포하는 창녕 교동 1호분과 비슷하여 이 지역과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홍보식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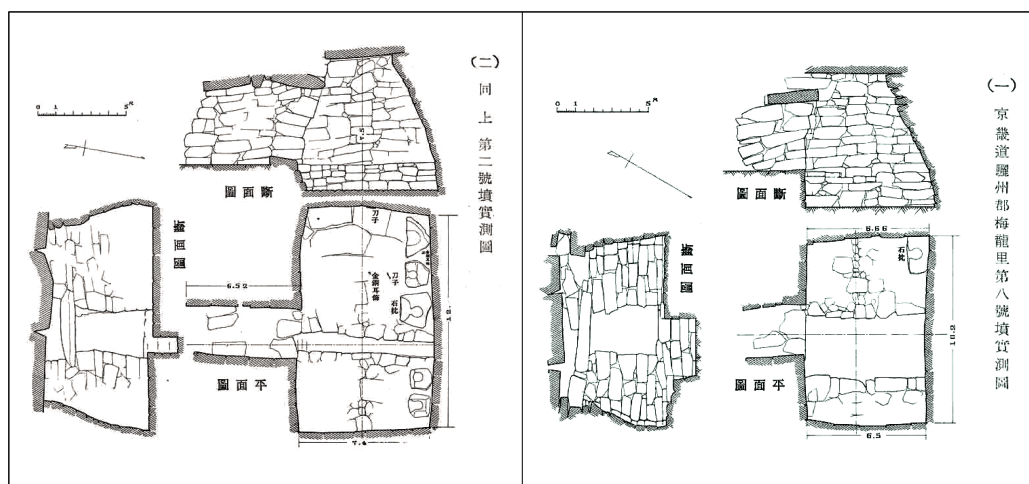


그림 14. 여주 매룡리 2호와 매룡리 8호

한편 한강 본류역과 남한강유역이 석실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계통의 석실묘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김진영 2007b). 즉 한강 본류역은 백제와 영남 서남부지역 석실 계통으로, 축조집단은 횡구식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사민된 가야계 집단과 횡혈식 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신라에 흡수된 백제 재지집단으로 보았다. 반면 남한강유역의 여주와 단양지역은 영남 서북부지역 석실과 연결되며, 충주지역은 왕경인 경주와 영남 서남부지역 석실 계통으로 설명하였다. 축조집단은 여주지역은 횡구식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상주일대의 지배집단을 주축으로 횡혈식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왕경의 지배집단 일부를 포함하며, 단양지역은 횡구식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영주와 예천일대의 지배집단으로 파악하였다. 또 충주지역은 횡혈식석실묘를 주요제로 하는 왕경과 가야계 집단으로 이해하였다. 이렇듯 한강

유역 신라 석실묘는 대부분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사민된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석실묘의 세부적인 속성의 차이를 통해 계통과 축조세력을 유추한 시도는 주목되지만 지역을 세세하게 특정할 수 있느냐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과 1997년에는 한림대학교박물관에서 여주 상리 산3-1번지 일원에 대한 조사에서 횡혈식석실묘<그림 15>와 횡구식석실묘 다수를 발굴하였다(翰林大學校博物館 2001). 발굴지역은 매룡리고분군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1지역에 해당하는데, 남한강과 인접한 해발 65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와 남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호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매룡리 2호, 8호분과 유사한 횡장방형에 중앙연도식 횡혈식석실묘로 주목된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현실의 규모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길이 2m 내외, 너비 3m 내외로 횡장방형 석실묘에 해당한다. 현실 내에서는 동벽과 서벽에 각각 높이 10cm 정도의 시상대가 길이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양쪽 시상대 위에서는 모두 두침석이 확인되었다. 연도는 남벽 중앙에 연결된 중앙연도식이며, 규모는 길이 126cm, 너비 92cm, 높이 101cm이다.

현실 내부에서는 보주형 꼭지를 가지며, 표면에 인화문과 이중원문이 찍힌 토기 뚜껑 1점이 출토되었다<그림 15>. 1호분의 경우 횡장방형 현실에 중앙연도를 가진 현실의 평면구조와 시상대 위에서 두침이 확인된 점, 전형적인 신라 후기양식 토기가 출토된 점을 종합할 때 신라 횡혈식석실묘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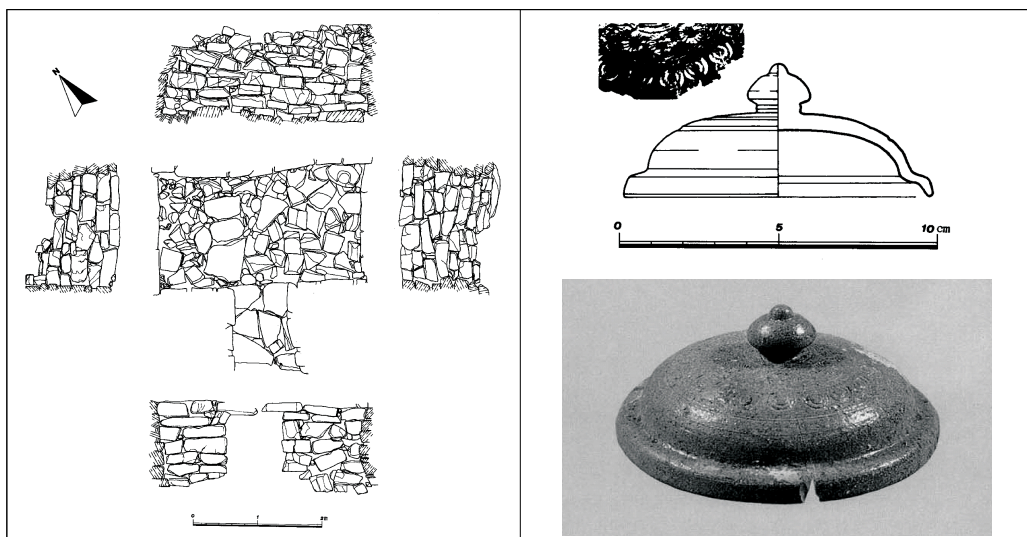


그림 15. 여주 상리 산3-1번지 1호와 출토 토기

한편 여주 상리 산3-1번지에서 1호분과 함께 조사된 횡구식석실묘와 석곽묘에서도 황룡사형 대금구(94년 3호분, 97년 1호분) 2세트, 신라 병형토기(97년 4호)가 출토되고 있어 고분군은 신라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매룡리 산14-1번지 일원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에서도 횡혈식석실묘 1기 <그림 16>과 수혈식석곽묘 4기가 조사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조사지역은 매룡리 고분군 중 고분이 밀집 분포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벗어난 지점으로 지표조사에서도 드문 드문 몇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횡혈식석실묘는 길이 250cm, 너비 105cm의 비교적 소형 장방형 석실묘이다. 내부에서는 부가구연 대부장경호, 단경호, 연질발 등 신라토기가 출토되었다. 함께 발굴된 수혈식석곽묘에서도 신라식 고배 등 신라토기가 출토되어 고분군의 성격을 말해준다.

1999년 여주군 매룡리 산4-25번지 일원에서는 횡구식석실묘 8기가 발굴되었다(畿甸文化財研究院 2000a). 발굴된 곳은 매룡리고분군에서 고분의 밀집도 가장 높은 4지역 능선의 남쪽 말단부에 해당한다.

석실묘는 모두 평면형태 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이다. 현실 내에서는 높이가 30~70cm 정도의 비교적 높은 시상대가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천석을 혼합하여 축조한 것도 있다. 시상대 위에서는 목관을 사용한 흔적인 꺾쇠나 관정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1호·4호·8호 석실묘에서는 자연석을 다듬은 두침이 확인되었으므로 시상대 위에 그대로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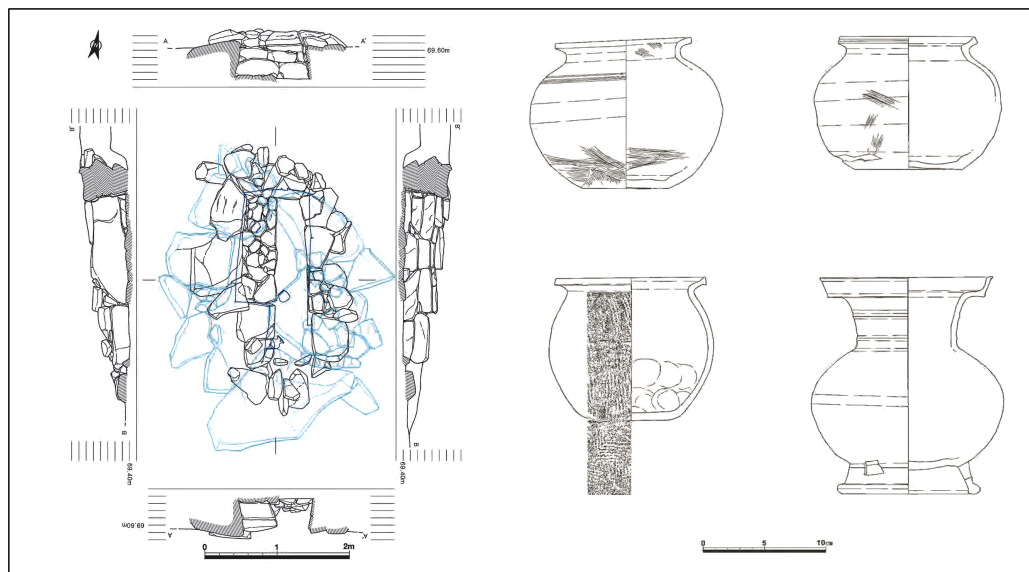


그림 16. 여주 매룡리 산14-1번지 유적 횡혈식석실묘와 출토유물

석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병형토기, 호, 발, 배, 완 등의 토기류가 주를 이룬다. 이 밖에 5호 석실묘에서는 도자, 철제 방울, 금동관이 출토되었다(그림 17). 특히 금동관은 이 고분군의 축조 주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금동관은 대륜의 폭이 3.2cm로 비교적 넓고, 대륜의 안쪽에서 밖으로 짝여 타출한 점열문이 새겨져 있다. 또 입식을 연결할 때 원두정과 銅絲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금동관은 소위 퇴화형식의 樹枝形帶冠으로서(박보현 1987; 咸舜燮 2012), 단양 하리, 대구 가천동, 동해 추암동, 파주 성동리 등 신라의 지방에서 6세기 중엽을 전후로 출토되고 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여주 매룡리고분군 횡혈식석실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고분군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고분이 여러 지점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고분군의 입지, 매장주체부의 성격, 출토유물 등을 통해 대략적인 축조 주체와 축조 시기는 파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여주 매룡리고분군은 횡혈식석실묘, 횡구식석실묘, 수혈식석곽묘 등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횡혈식석실묘의 수는 비교적 적고 횡구식과 수혈식석곽묘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횡혈식석실묘의 경우 횡장방형 현실 평면에 중앙연도식이며 비교적 높은 시상대를 마련한 전형적인 신라 석실묘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상대 위에서 확인된 두침석과 태환이식은 고분의 주인공이 신라의 비교적 높은 위계를 가진 인물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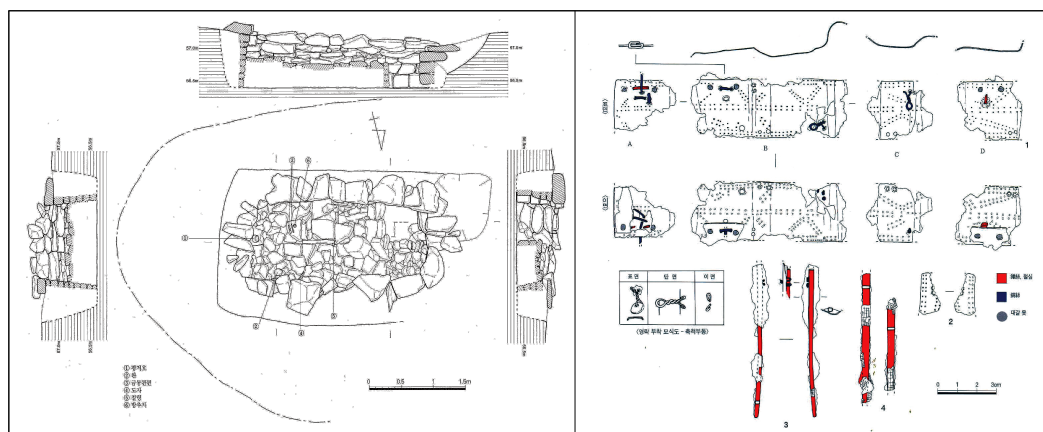


그림 17. 여주 매룡리 산4-25번지 5호 횡구식석실묘와 금동관

뿐만 아니라 횡구식석실묘와 수혈식석곽묘에서도 다양한 기종의 신라토기와 황룡사형 대금구, 퇴화형식 수지형대관 등이 출토되어 신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분군임을 증명하고 있다. 고분군의 조영시기는 토기의 형식, 태환이식, 수지형대관 등을 통해 볼 때 빨라

야 6세기 중엽 정도로 볼 수 있고, 인화문이 시문된 보주형 꼭지의 토기 뚜껑 등으로 미루어 7세기 중엽까지도 조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고분이 발굴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은 국원소경으로서 왕경의 귀족과 6부의 호민이 옮겨 와 축조한 고분군인 것에 비해 여주 매룡리고분군은 축조집단의 위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2. 서울지역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인 하남 일대와 서울의 가락동·방이동 일대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553년 이후 설치한 新州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 중 일제강점기부터 발굴된 핵심적인 고분군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과 방이동 일대에 분포하는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이다. 특히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는 한성기 백제 석실묘(홍보식 1993, 2009a; 李賢淑 2013)인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후 축조한 신라 석실묘(강현숙 1996; 崔秉鉉 1997; 金昊鎭 1999; 김기범 2004)인지의 논쟁은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475년까지 한성백제의 왕도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석촌동고분군과 가락동고분군에는 신라의 석실묘가 조영되기 전까지 한성백제가 축조한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서 한성백제기 횡혈식석실묘가 잇따라 확인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남 감일동고분군(高麗文化財研究院 2019)에서 52기, 하남 감이동유적(백제문화재연구원 2018a)에서는 5기 등 대규모의 한성기 백제 횡혈식석실묘가 발굴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석실묘에서는 백제토기, 누금기법의 금제구슬, 중국제 청자호수호, 청자계수호, 청자완, 백자잔 등이 출토되어 한성백제의 최고 귀족층의 고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감일동과 감이동 석실묘의 경우 모두 지하식의 장방형 현실에 우편제 연도를 가지는 정형성이 보이고 있어 한강유역 한성기 백제 석실묘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의 축조주체를 논함에 있어 한성백제 중심부에서 조사된 백제 횡혈식석실묘가 많지 않아 비교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백제 석실묘의 발굴은 한성백제 횡혈식석실묘 연구뿐만 아니라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실체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성기 백제 석실묘뿐만 아니라 신라가 축조한 한강유역 석실묘도 최근 들어 속속 조사가 되고 있다(그림 18).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 후 설치한 新州의 치소가 있던 곳으로 전

해지는 하남 이성산성³⁾과 인접한 하남 광암동과 금암산고분군에서 신라 횡혈식석실묘가 발굴되었다(하남역사박물관 2016, 2018; 백제문화재연구원 2018b). 이러한 자료의 증가로 인해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석실묘와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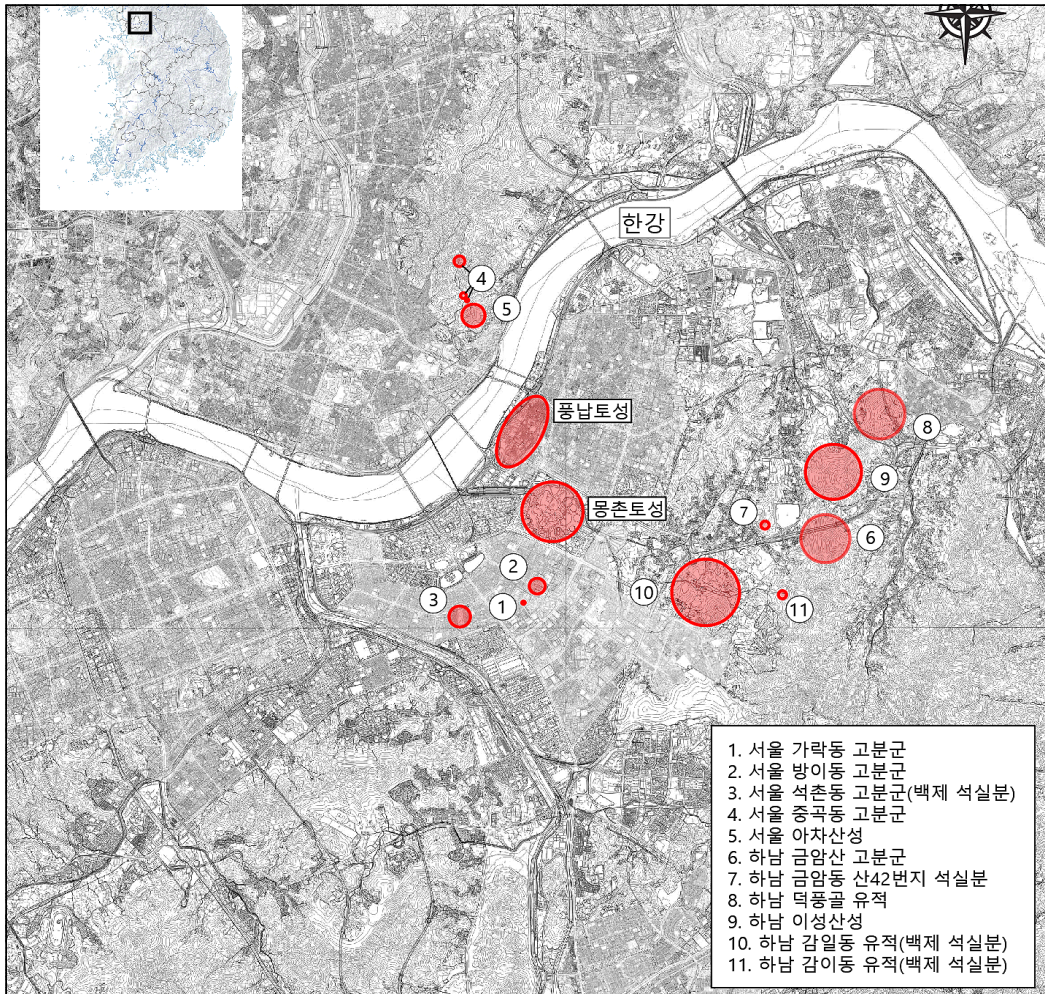


그림 18. 한강유역 신라고분 분포도

3)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고구려, 남쪽으로는 백제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군사적 긴장관계는 지속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신라는 한강유역에 많은 산성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기존의 산성을 개축하였다. 따라서 한강유역은 고분군과 성곽이 세트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남 이성산성도 그 중 하나이다. 이성산성은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설치한 新州의 치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성으로 중국과의 교섭관계를 추진하는 전초기지였으며,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한강수계의 군사·행정의 중심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홍보식 2009).

이번 장에서는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입지, 석실묘의 구조와 축조방법, 출토유물 등을 검토하고 최근 새롭게 발굴된 하남 이성산성 주변의 신라 석실묘인 금암산고분군과 한성백제기 석실묘인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석실묘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고분군의 축조주체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락동·방이동고분군과 석촌동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당시에는 한성기 백제의 고분으로 인식되었으며(朝鮮總督府 1920, 1935) 신라 횡혈식석실묘와의 연관성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작성된 고분 분포도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고분의 위치나 조사내용이 불명확하였다. 최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고분 분포도 및 조사내용과 해방 이후의 항공사진, 지형·지적도, 수치지형도, 행정문서, 발굴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석촌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공간 분포를 검토한 연구(조가영 2012, 2018)는 한강유역 석실묘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방 후에는 1970년대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가락동 3~6호분, 방이동 1·4·6호분이 조사되었다(蠶室地區遺蹟發掘調查團 1977, 1978). 그리고 최근에는 방이동고분군 3호분에 대한 보존 정비를 위해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한성백제박물관 2017).

1) 고분의 입지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가락동과 방이동으로 나뉘어져 2개의 고분군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 해발 55m를 정점으로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성 산지에 분포하는 하나의 고분군이다(崔秉鉉 1997).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가락동 2호분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가락동4~6호분 3기는 해발 50m정도의 구릉 정상부 주변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가락동 3호분은 가락동4~6호분에서 남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홀로 위치하고 있다. 방이동고분군은 다행스럽게도 축조당시 고분의 입지를 알 수 있는데, 완만한 구릉의 남쪽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분포 입지(그림 19)는 평지가 아닌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조영되었으며 대체로 남쪽을 조망하고 있다. 특히 연도의 방향도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2016년 하남역사박물관이 실시한 하남 광암동 금암산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인화문이 찍힌 전형적인 신라토기가 부장된 방형 현실에 중앙연도식의 횡혈식석실묘가 확인되었다(하남역사박물관 2016). 또 2018년 조사에서도 횡구식석실묘, 석곽묘 등 18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신라식 토기, 황룡사형 대금구 등 신라유물이 출토되었다(하남역사박물관 2018). 이 금암산

고분군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설치한 新州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는 이성산성(漢陽大學校博物館 1991)과 인접한 곳에 분포하는 신라 고분군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금암산고분군의 입지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고분군에서는 횡혈식석실묘, 횡구식석실묘, 수혈식석곽묘 등 다양한 신라식 묘제가 혼재하고 있으며, 고분은 금암산의 주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평지가 아닌 산지의 능선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은 신라 왕도 주변 산지의 횡혈식석실묘 분포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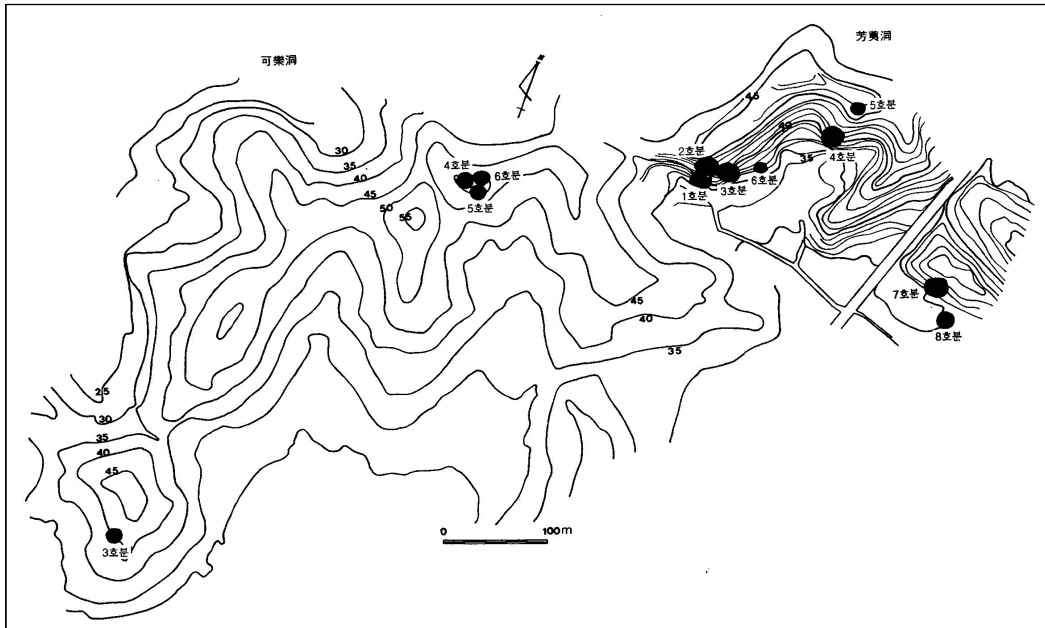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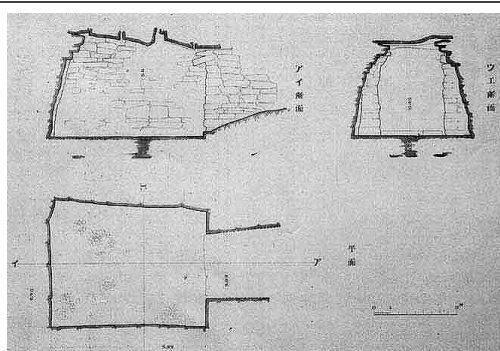
그림 19. 서울 가락동·방이동고분군 분포도(崔秉鉉 1997)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고분군의 입지도 구릉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가락동·방이동고분군과 유사하다. 감일동고분군에서 43기의 석실묘가 밀집된 1지점에서는 해발 30~50m 내외의 구릉 남사면에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강태홍 2019). 또 감이동 백제 석실묘도 금암산(321m)에서 뻗어 나온 가지능선의 말단부 남사면에 위치한다(백제문화재연구원 2018a). 그런데 석실묘의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라 석실묘 분포와 차이점이 확인된다. 즉 감일동 석실묘의 경우 석실묘 간의 간격이 넓은 곳은 20~40m, 좁은 곳도 8~20m 정도로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이 3~4기씩 군집을 이루며 축조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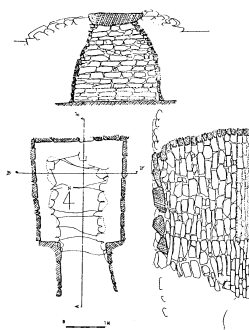
또 하남 감일동 석실묘의 경우 능선의 횡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분포패턴 역시 능선의 종방향으로 분포하는 신라 횡혈식석실묘와는 차이가 분명하다.

2) 석실묘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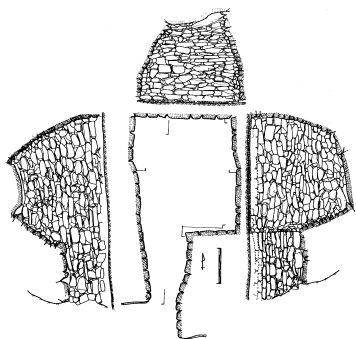
횡혈식석실묘의 계보, 위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속성은 현실의 구조와 규모이다. 따라서 서울 가락동·방이동고분군<그림 20>과 하남 감일동고분군을 비롯한 주변 한성기 백제 횡혈식석실묘<그림 21>의 현실 속성들을 비교함으로써 고분간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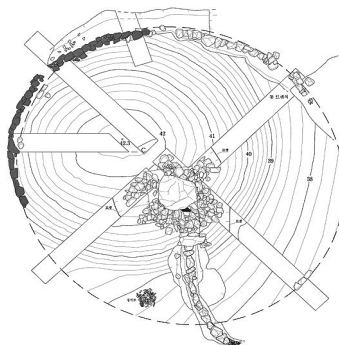
서울 가락리 2호



서울 가락동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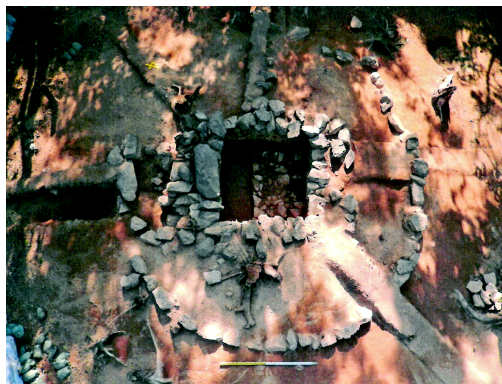
서울 방이동 1호



서울 방이동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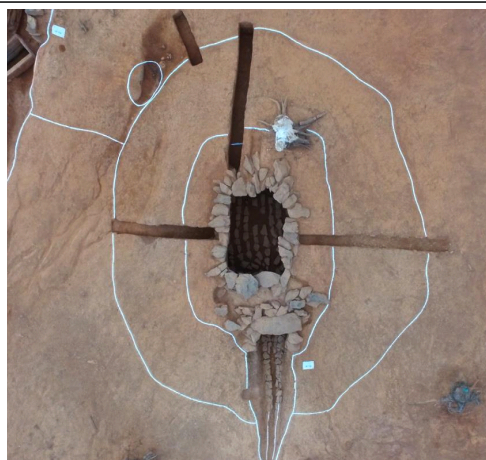


하남 광암동 산42번지 1호



하남 금암산고분군 1호

그림 20. 한강유역 신라 횡혈식석실묘



하남 감일동 1-③지점 2호



하남 감일동 1-③지점 8호



하남 감일동 1-③지점 27호



하남 감일동 2-⑤지점 1호



하남 감이동 2호



하남 감이동 5호

그림 21. 한강유역 백제 횡혈식석실묘

먼저 서울 가락동·방이동고분군 석실묘의 현실 평면형태는 길이:너비의 비율이 분류기준으로 볼 때 방형에 해당하는 1:0.8~1:1.25 사이에 대부분 속한다. 그동안 장방형 현실로 알려진 가락동 5호의 경우도 1:0.8로 장방형과 방형의 경계에 해당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방형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락동·방이동고분군 석실묘의 평면형태는 방형이 중심이며, 평면 장방형 일색인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성남 판교 등 한성기 백제 석실묘와는 대조적이다.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광암동, 성남 판교 등 한성기 백제 중심부와 주변부의 횡혈식석실묘는 대체로 평면 장방형에 우편재 연도를 가진 정형성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웅진도읍기의 초기 횡혈식석실묘 구조를 보이는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석실묘도 대부분 방형·장방형 평면에 우편재로 정형화되었다(李賢淑 2013). 따라서 백제 한성기와 웅진기 초의 횡혈식석실묘는 장방형 현실에 우편재 연도의 정형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평면 방형에 중앙연도식의 횡혈식석실묘도 서울 우면동 등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정형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연도의 위치는 가락동 3·4·6호, 방이동 3호가 우편재식이며, 방이동 1호는 좌편재식이다. 또 가락동 2·5호, 방이동 4·6호는 중앙연도식이다. 이렇듯 조사된 고분의 수가 10기밖에 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연도의 위치가 좌편재식, 우편재식, 중앙연도식이 모두 확인된다. 이러한 다양한 연도의 위치는 신라 왕도의 횡혈식석실묘가 다양한 연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하남 감일동고분군의 52기, 하남 감이동고분군의 5기, 성남 판교고분군에서는 연도의 위치가 모두 우편재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백제 웅진기 초기 석실묘에 해당하는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경우도 연도의 위치가 우편재식으로 정형화된 것(李賢淑 2013)은 한성기 석실묘의 전통으로 생각된다.

시상대 혹은 관대의 경우 방이동 3호분은 바닥면이 도굴로 인해 일부 교란되었으나 현실 전면에 강자갈을 이용해 20cm 정도 부식한 후 할석을 이용하여 별도의 시상대를 마련하였다. 또 1975년 발굴된 방이동 1호분 현실 바닥에는 10cm 내외의 강자갈을 깔았으며, 조사 당시에는 이미 파괴되어 없어졌으나 판석편을 쌓아 길이 2.4m, 너비 1.3m, 높이 30cm의 시상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蠶室地區遺蹟發掘調查團 1977; 崔秉鉉 1997). 가락동·방이동의 석실묘 바닥이 교란으로 인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방이동 1호와 3호분으로 미루어 다른 석실묘에서도 시상이나 관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 고분군으로 밝혀진 하남 광암동 금암산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와 횡구식석실묘, 석곽묘에서는 전반적으로 할석으로 축조한 시상대가 확인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반면 현실의 바닥 처리방법에 있어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경우 생토나 할석을 부석하였으나 별도의 시상대나 관대는 설치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李賢淑 2013). 최근 발굴된 하남 감일동 한성기 백제 석실묘 52기에는 시상대나 관대가 설치된 것이 한 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 할석으로 부석하거나 점토와 풍화암반을 혼합하여 다져 바닥면을 처리하였는데⁴⁾, 후자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강태홍 2019).

봉분의 호석 유무나 축조방식도 고분의 축조주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경우 대부분은 원형 봉토분인데, 대체로 봉분의 둘레를 자연석이나 치석한 석재를 이용해 호석이 둘러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봉분 호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굴된 방이동 3호분의 경우 원형의 봉분 둘레에 강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호석열이 확인되었다(윤정현 2019). 1970년대 발굴된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의 경우 봉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도면에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조사된 상황이 확인된다. 다행히 가락동 6호분의 경우 매장주체부를 찾기 위해 트렌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호석이 확인되었다. 또 하남 금암산고분군 신라 석실묘와 최근 ‘성남~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구간(1구간) 내 유적’에서 조사된 하남 광암동 신라 횡혈식석실묘(백제문화재연구원 2018b)에서도 자연석으로 쌓은 호석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경우 봉토가 명확히 잔존하는 예가 많지 않지만 석실묘 주위를 호석으로 두른 경우가 거의 없다. 하남 감일동에서 발굴된 52기의 백제 석실묘에서도 호석이 확인된 경우는 한 기도 없다. 또 하남 광암동과 성남 판교유적 한성기 백제 석실묘에서도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은 횡혈식석실묘 매장주체부인 현실의 위치가 지하식인지, 지상식인지의 문제이다.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축조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최병현이 지적하였듯이 석실묘가 능선의 경사면에 축조되었으므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석실 기저부의 평면을 정지 또는 조성하기 위해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석실묘는 석실 하단부가 지하에 축조되는 반지하식, 또는 석실 거의 대부분이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식이 아닌 지상식으로 보아야 한다(최병현 1997).

이에 비해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경우 대부분 현실이 반지하식 혹은 지하식으로 축조되는 정형성이 확인된다. 하남 감일동고분군의 석실묘 52기는 모두 반지하식 구조이다(강태홍 2019).

한편 서울 가락동·방이동고분군에서는 석실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방이동 5호분과 석촌

4) 발굴조사 약보고서(高麗文化財研究院 2019)에서는 현실의 바닥면을 할석으로 관대를 설치한 것으로 기술한 것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발굴조사 후 부석으로 조정한 듯하다.

동 3호분 동쪽 석곽묘 등 신라 유물이 출토되는 석곽묘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이는 신라 왕도의 횡혈식석실묘를 중심으로 한 고분군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석곽묘가 같은 구역에서 조영되는 것과 유사하다. 신라 중고기동안 주된 묘제는 횡혈식석실묘였지만 횡구식석실묘와 수혈식석곽묘도 함께 조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횡구식석실묘와 수혈식석곽묘를 횡혈식석실묘에 비해 위계가 낮은 신분의 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최병현 2012).

이상과 같이 한성기 백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한강유역 횡혈식석실묘의 현실 평면형태, 연도의 위치, 시상대 혹은 관대의 유무, 봉분의 호석, 현실의 축조위치 등 다양한 속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동쪽과 서쪽에 3km 남짓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가락동·방이동 석실묘와 하남 감일동·감이동 석실묘는 구조적인 차이, 출토유물 등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경우 묘실의 다양한 평면형태, 연도 위치의 다양성, 시상대의 존재, 봉분 주위를 두른 호석의 존재, 지상식 석실 축조 등 모든 면에서 신라 왕도의 석실묘와 유사하다. 반면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석실묘는 현실 평면 장방형, 우편재 연도, 반지하식 축조, 중국식 자기의 부장 등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정형성이 확인된다.

그런데 서울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현실 평면형태, 연도의 위치 등 속성의 다양성이 한성기 백제 횡혈식석실묘의 시원형으로서 정형화되기 이전의 양상으로 판단한 견해가 있다(李賢淑 2013).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군과 불과 3km 남짓 떨어진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고분군에서 현실평면 장방형이면서 우편재연도의 정형성이 뚜렷한 한성기 백제 석실묘가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축조연대는 석실묘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형식으로 판단했을 때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하남 감일동 백제 석실묘의 주인공은 한성백제 최고 귀족층으로 보고 있어(성정용·박신영 2019), 475년 웅진 천도 이전으로 편년되어야 한다. 하남 감이동 백제 석실묘 조사단은 감일동고분군과 석실묘의 형태, 벽석에 사용된 석재, 조성방식 등이 유사하며 출토유물도 동일 시기로 판단하면서 4세기 후반~5세기 초로 편년하였다(백제문화재연구원 2018a). 그렇다면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시원형으로 판단한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이 정형화된 감일동고분군의 연대보다 더 늦게 축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은 한성기 백제 초기 석실묘로 볼 수 없고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축조된 신라의 석실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출토유물

서울 가락동·방이동고분군과 하남 감일동고분군을 비롯한 한강유역 횡혈식석실묘에서는 토

기, 중국제 자기, 장신구 등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분의 축조시기와 축조주체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가락동·방이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토기<그림 22>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석실묘를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주장하는 연구자는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 후 부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백제 석실묘로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는 백제가 만든 석실묘에 한강유역에 진출한 신라가 재사용하면서 신라토기가 부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락동·방이동 석실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다. 토기는 단각의 유개고배, 대부완, 대부직구호, 병형토기 등 중고기 신라 석실묘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토기 조합이라 할 수 있다. 토기의 편년에 대해서는 방이동 6호에서 출토된 고배가 경주 황룡사지 폐토기무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으로 6세기 중엽으로 편년한 바 있다(崔秉鉉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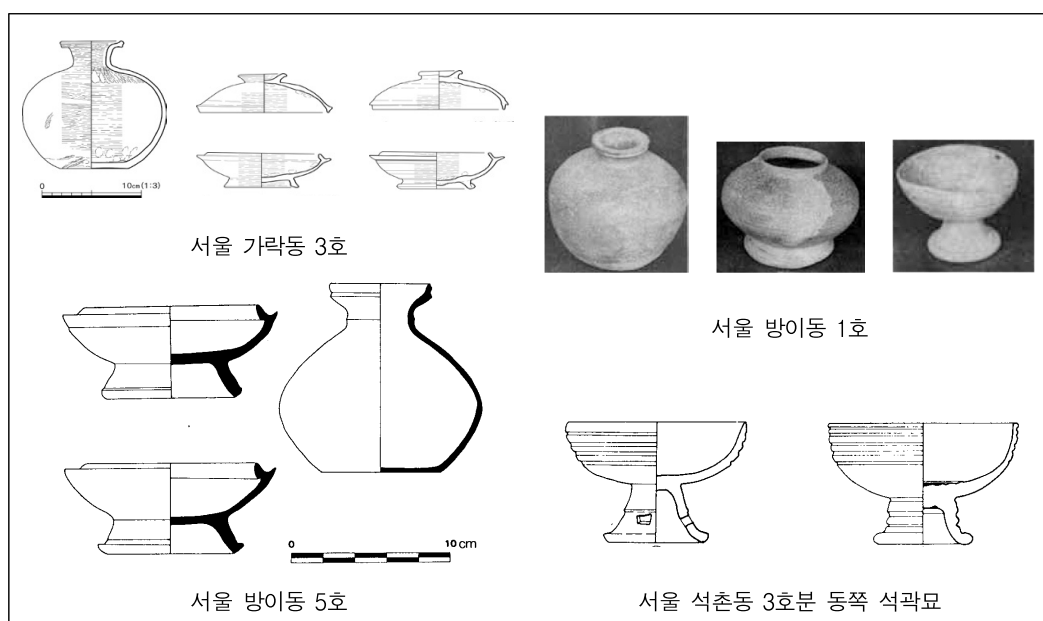


그림 22. 한강유역 출토 신라유물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백제가 축조해 놓은 석실묘를 재사용함으로써 신라토기가 한성 백제 석실묘에 부장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앞서 중고기 신라 왕도의 석실묘의 입지와 축조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듯이 신라 6부는 각각 자신들만의 고유한 산지를 택하고 그들의 묘역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고분군을 조성함에 있어 상당히 배타적이었으며, 각 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인들이 완전히 새롭게 정복한 지역에서 백제가 축조한 고분을 재사용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림 23. 한강유역 백제 횡혈식석실묘 출토유물(高麗文化財研究院 2019)

또 가락동·방이동고분군의 축조주체를 백제로 인식하는 주요 근거 중의 하나가 가락동 3호에서 출토된 방두정이다. 즉 신라 석실묘에서는 목관을 사용하지 않으며, 출토된 방두정이 한성기 백제 석실묘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라 왕도의 소금강산지구, 말

암산지구 등 대부분의 고분군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원두정이 출토되고 있다. 또 방두정이 백제계라 하지만 목관의 부속구에 불과한 방두정은 현지 생산품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반면 현실 내에서 출토된 유개고배와 병은 확실한 신라토기이므로 피장자가 신라와 관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가락동 5호분 현실과 연도 바닥에서는 기와편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이 기와의 내면에는 통쪽 와통을 사용하여 제작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구려와 백제 기와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한성기 백제가 축조한 석실묘로 판단하였다(성정용 2009). 또 가락동 5호분 출토 평기와의 두께가 2.5cm이고, 외면은 승문이 내면은 올이 가는 포흔이 확인된다. 표면에 승문이 시문된 평기와는 백제 한성기 풍납토성에서도 출토되었지만 두께가 이것보다 얇아 백제 한성기 기와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두께의 기와가 고구려 기와에서는 찾을 수 있어 신라 기와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홍보식 2009). 그래서 가락동 5호분에서 출토된 기와는 가락동고분군 축조집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성기 백제 석실묘에서 기와를 부장하는 전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 고분이 고구려 세력이 축조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석실묘에 기와를 부장하는 전통은 7세기 신라 석실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신라 석실묘에서 기와는 주로 시상대 위에 놓아 두침이나 족자 등으로 사용된다. 즉 부장품이 아니라 횡혈식 석실묘의 장제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설령 가락동 5호분에서 출토된 기와가 신라 생산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라 석실묘에 현지에서 생산된 기와가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남 감일동고분군에서는 가락동·방이동 석실묘 출토유물과는 전혀 다른 유물 조합상을 보여주고 있다. 직구호, 완, 심발, 병, 고배, 개배, 소호, 광구호 등의 다양한 토기류와 중국제 자기인 鷄首壺와 虎首壺, 부뚜막형 토기, 금제구슬과 가랑비녀 등의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23). 감일동 석실묘 출토토기를 통해 백제의 고대국가 성립 이후 직구(단경)호와 소형기종(완, 평저소호 등)의 부장 패턴이 확립되었으며, 횡혈식석실묘의 축조시점은 한성백제 II·III기⁵⁾에 집중 조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한지선 2019). 이와 같이 감일동 석실묘의 유물 조합은 명백한 한성기 백제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라와 관련된 유물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산 자기인 계수호와 호수호, 백자잔 등은 그동안 한성기 백제 석실묘에서 출토예가 증가하고 있는 유물이다. 감일동 석실묘에서 출토된 계수호는 동진제 청자 계수호와 유사점이

5) 한성백제 II기는 4세기 전반~후반, III기는 4세기 말~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한지선 2013).

확인되고 있다. 또 감일동에서 출토된 청자 호수호는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출토예가 매우 드문 기종으로 남경 육조묘에서 호랑이 머리를 표현한 기종이 있을 뿐이다(문재범 2019).

또 감일동에서는 부뚜막형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형태가 배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배모양 부뚜막 토기’로 불리는데, 감일동 출토품은 중국의 장강 중하류 이남지역에서 주로 유행 하였던 형식으로 청자 계수호가 중국 동진과 연결되는 점과 부합된다(문재범 2019).

하남 감일동고분군에서는 방두정과 꺾쇠가 출토되었으며, 1-②지점 3호 석실묘에서는 주목으로 판명된 관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목관 사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강태홍 2019). 신라가 기본적으로 장법에 있어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하지 않는 直葬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한강유역 한성백제 석실묘와 신라 석실묘 비교

| 속 성 | 한성백제 석실묘 | 신라 석실묘 |
|--------|----------------------|--------------|
| 입지 | 능선 남사면 | 능선 정상부, 사면 |
| 평면형태 | 장방형 | 방형 |
| 연도위치 | 우편재 | 좌편재, 우편재, 중앙 |
| 시상 | 부석 | 시상, 관대 |
| 현실위치 | 반지하식 | 지상식 |
| 호석 | 없음 | 있음 |
| 장법(葬法) | 목관 | 직장(直葬) |
| 유물 | 백제토기, 중국자기 관정, 꺾쇠 | 신라토기 |
| 축조연대 | 4세기 후반~5세기 초 | 6세기 중엽~7세기 |
| 묘제 | 횡혈식석실묘 | 횡혈식석실묘, 석곽묘 |

이상과 같이 한강유역에서 분명하고 정형화된 한성기 백제 횡혈식석실묘에서 백제 토기와 백제가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국제 유물이 세트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 축조주체에 대한 문제는 명확해지고 있다. 한강유역 한성백제 석실묘와 신라 석실묘의 여러 속성을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IV. 한강유역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특성과 의미

지금까지 6세기 중엽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새롭게 신라 영토로 편입된 지역인 충주지역과 한강유역의 횡혈식석실묘에 대해 검토하였다. 두 지역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있어 지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성장시켰음을 횡혈식석실묘의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의 경우 고분의 입지와 분포에 있어 왕경인 경주의 ‘산지군집형’ 고분군과 매우 흡사하였다. 치소가 있던 탑평리 유적에서 멀리 않은 산록의 남사면을 중심으로 군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또 대형의 봉토분은 비교적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입지하며 중소형분들은 다소 입지가 좋지 못한 사면에 분포하고 있었다.

횡혈식석실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왕경과 매우 닮아 있다. 먼저 호석의 경우 대부분 원형의 ‘무부석천석담장형’으로 축조하였다. 또 현실의 축조위치는 정지한 면을 일부 굴착하여 반지하식으로 축조하거나, 정지된 면 위에 현실의 최하단석을 놓고 쌓아올린 지상식으로 나뉜다. 현실 내 시상은 바닥 전면에 자갈을 깔고 한쪽 벽면에 치우쳐 석단을 쌓아 만든 유형이 많다. 왕도의 최고 지배자급에서 사용되는 판석을 탁자식으로 조립하여 만든 유형의 시상이나 두침, 견좌, 족좌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법 또한 현실 내에서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한 흔적인 관정이나 관고리 등이 전혀 출토되지 않고 있어 시신을 직접 안치하는 直葬이 기본 장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의 평면형태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점이 확인된다. 즉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석실묘의 경우 방형 현실이 압도적 수를 차지하고 종장방형과 횡장방형의 수는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왕도의 경우 상위 위계의 계층이 선호했던 방형 현실이 장방형 현실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연도의 위치이다. 왕도의 경우 중앙연도식 연도를 가진 석실묘가 전체 290기 중 21기로 7.2%에 불과해 특정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누암리와 하구암리의 경우 중앙연도식이 전체 64기 중 11기로 17%를 차지하고 있어 왕도에 비해 1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실 평면형태와 연도의 위치를 통해 충주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에 분포하는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평균적인 위계가 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출토유물에서도 신라 관등제의 상징적 유물로 평가되고 있는 ‘누암리형 대금구’와 목걸이, 세환이식 등 위세품이 상당량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주 누

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은 『삼국사기』에 557년(진흥왕 18) 고구려의 국원성이 있던 충주지역에 국원소경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558년에는 왕경의 귀족과 6부 호민을 이주시켰다는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고학적 자료로 볼 수 있다.

여주지역은 남한강의 중류에 위치하는 거점으로 매룡리고분군에서 많은 신라 황혈식석실묘가 조사되었다. 이 지역도 지리적으로 남한강에 접하고 있는 점이 충주지역과 매우 유사하다. 고분군의 입지 또한 충주 누암리와 하구암리고분군과 매우 닮아 있다. 즉 남한강 서안에서 인접한 비교적 낮은 산지의 남쪽 사면을 중심으로 군집하여 고분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산지 군집형’ 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

여주 매룡리고분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고분이 출토되었다. 즉 황혈식석실묘의 수가 적고 황구식석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황혈식석실묘가 중심이었던 충주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것은 충주지역이 왕경의 귀족과 6부 호민 계층이 축조한 것인데 비해 여주지역의 경우 다양한 계층이 축조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한강유역으로 553년(진흥왕 14)에 新州가 설치된 후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하남 이성산성 일원은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 이북과 이남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로의 중심지이면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지점이어서 수로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거점이었다. 또한 지형학적으로 남한산성이 자리한 청량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객산과 금암산이 U자형으로 감싸고 있어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유리한 곳이다(皇甫慶 2009).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한성백제 시기에는 왕도가 위치했던 곳이며, 신라는 한강유역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지역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후 가장 먼저 이곳에 신주를 설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신라가 진출하기 이전까지는 한성기 백제의 왕도였으므로 백제인들이 축조한 고분과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세력이 축조한 황혈식석실묘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 서울 가락동과 방이동 일대의 황혈식석실묘는 일찍부터 그 축조주체에 대한 논쟁으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서울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 황혈식석실묘의 축조 세력이 한성백제인지 신라인지가 주된 논쟁이 되었다.

이러한 오랜 논쟁에 대해 고분군의 입지, 황혈식석실묘의 속성, 출토유물을 검토하고 최근 새롭게 발굴된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한성기 백제 석실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가락동·방이동고분군과 인접한 곳에 위치

하는 하남일원에 분포하는 신라 횡혈식석실묘도 검토하였다.

먼저 고분의 입지는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의 경우 구릉 정상부와 완만한 남쪽 사면부에 분포하고 있다. 또 하남 광암동과 금암산고분군은 이성산성 주변 산록의 정상부와 능선상부에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어 ‘산지 군집형’ 고분군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한성기 백제의 석실묘 고분군인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고분군의 경우 능선의 사면에 분포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분포에 있어 군집되지 않고 고분군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횡혈식석실묘의 구조적인 속성으로 호석의 형태, 현실의 평면형태와 설치 위치, 현실 바닥면 처리방법, 연도의 위치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가장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현실의 평면형태와 연도의 위치이다.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과 하남 일원 신라 석실묘의 경우 현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감일동 백제 석실묘의 경우 모두 종장방형을 취하고 있다. 연도의 위치는 신라 석실묘의 경우 왕도의 양상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중앙연도식, 좌편재식, 우편재식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유형 모두가 확인된다. 서울지역 석실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이 모두 조사되었다. 반면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대부분은 우편재를 기본적인 연도의 방향으로 축조되는 공통점이 보인다.

현실 바닥의 경우 신라 횡혈식석실묘는 기본적으로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 直葬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자갈이나 판석을 깔거나 별도의 시상을 축조한다. 반면 한성기 백제의 석실묘는 바닥에 부석을 까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바닥의 형태와 시상은 장법과도 관계되는데 신라 석실묘의 경우 목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신을 시상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직장을 더 선호하였다. 반면 감일동과 감이동에서는 석실 내부에서 관정이나 꺾쇠 등이 다수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기본적으로 목관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葬法에서도 신라와 백제의 석실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봉분 둘레 호석은 가락동고분군의 경우 발굴 당시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발굴된 방이동고분군은 봉분의 호석이 확인된다. 봉분 주변을 치석하거나 자연석을 2~3단 쌓은 ‘무부석천석담장형’ 호석으로 신라식 고분에서 확인되는 유형이다. 반면 한성기 백제 석실묘에서는 호석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주구의 흔적은 보인다. 또 현실의 축조 위치 또한 신라 석실묘가 반지하식이나 지상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백제 석실묘는 기본적으로 반지하식 또는 지하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도 명확히 구분된다. 서울 가락동·방이동 석실묘에서 신라식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최근 조사된 방이동 3호분에서는 도굴로 인해 명확

한 유물 부장양상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방이동 3호분에서 채취한 목탄과 고인골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통해 고분의 절대연대가 기원후 540~610년 사이로 추정(김명진·성기석 2019)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의 석실묘에서는 백제식 토기(한지선 2019),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계수호와 호수호, 백자잔 등 한성기 백제 석실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또 부뚜막형 토기, 금제 구슬, 쇠뇌 등도 출토되었는데, 특히 부뚜막형 토기의 경우 배모양의 형태로 중국 장강중하류 이남에서 유행했던 유형이다. 따라서 감일동 시기의 백제조정이 장강 중하류지역의 동진 및 남조정권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물로 평가(문재범 2019)되고 있다.

이상으로 한강유역에서 발굴된 횡혈식석실묘의 입지, 석실묘의 구조적 속성, 장법,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지역에 분포하는 횡혈식석실묘임에도 불구하고 고분군의 입지, 현실의 평면형태, 연도의 위치, 바닥시설과 시상, 호석의 유무, 장법, 출토유물 등 모든 면에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축조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 그리고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하남 광암동과 금암산고분군은 한성백제 석실묘가 될 수 없으며,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축조한 석실묘임이 명확해졌다.

V. 맺음말

이 논문은 충주지역, 여주지역, 서울지역에서 조사된 횡혈식석실묘의 구조, 입지, 출토유물 등을 검토하고 축조 주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지역의 횡혈식석실묘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흥왕대 이후 신라는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거점지역이었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557년 한강유역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였던 남한강변의 충주지역에 소경을 설치하고 이듬해에 왕경의 귀족과 6부 호민들을 이주시켰다. 이 역사적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충주 누암리 및 하구암리고분군에 분포하는 횡혈식석실묘이다. 두 고분군은 입지와 분포유형이 왕도와 유사한 산록의 남사면에 군집하여 분포하는 ‘산지 군집형’을 이루고 있다. 또 전형적인 신라 횡혈식석실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앙연도를 가진 방형 현실의 석실묘 비중이 높았다. 또 누암리형 대금구와 토기를 비롯한 신

라식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충주지역 누암리, 하구암리 횡혈식석실묘는 6세기 중엽 국원소경이 설치된 이후 왕경에서 이주해 온 왕경인이 축조한 석실묘임을 알 수 있었다.

남한강의 중류에 위치하는 여주지역에서는 이미 일제강점기에 상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가 조사되었다. 이후 여주 매룡리고분군에서도 간간이 횡혈식석실묘와 횡구식석실묘가 발굴된 바 있다. 이 여주지역 매룡리고분군 역시 남한강 서안의 비교적 낮은 산지의 능선 상부와 사면에 입지하고 있어 충주지역 고분군과 유사점이 인정된다. 또 고분군에서는 횡장방형 횡혈식석실묘와 장방형 석실묘 등이 확인되었고 부장된 유물 또한 신라유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주지역 또한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과 진출 후 조성된 신라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553년에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신주(新州)를 설치한다. 신주를 설치한 지역은 한강 이남의 하남 이성산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이성산성과 가까운 한성기 백제 왕도였던 서울 가락동과 방이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에 대해 백제 석실묘인지 신라 석실묘인지 축조 주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분군의 입지, 구조,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볼 때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정형성이 뚜렷이 확인되므로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후 축조한 신라 석실묘로 판단하였다. 또 최근 하남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서 대규모의 한성기 백제 석실묘가 발굴됨으로써 고분의 구조, 축조방법, 출토유물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었다. 검토 결과 동일한 지역이지만 한성기 백제 석실묘와 신라 석실묘는 구조적으로나 부장유물에 있어 차이가 뚜렷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축조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高麗文化財研究院, 2012, 『漣川 江內里遺蹟』
_____, 2019,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忠州 樓岩里古墳群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1, 『忠州 下九岩里古墳群 지표조사보고서』
국립청주박물관, 2012, 『국원성, 국원소경, 중원경』특별전시 도록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a, 『여주 상리·매룡리고분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_____, 2000b, 『驪州 梅龍里 山4-25번지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문화재연구소, 1991,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92,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백제문화재연구원, 2018a, 「고속국도 제29호선 성남~구리 건설공사구간(1구간)내 문화유적 1차 발굴 조사 약보고서」
_____, 2018b, 「고속국도 제29호선 성남~구리 건설공사구간(1구간)내 문화유적 2차 발굴 조사 약보고서」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 1977,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韓國考古學報』3, 한국고고학회.
_____, 1978,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韓國考古學報』4, 한국고고학회.
朝鮮總督府, 1916a,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
_____,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
_____, 1935,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中央文化財研究院, 2010, 『忠州 下九岩里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驪州 梅龍里遺蹟』
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中原 樓岩里 古墳群』
하남역사박물관, 2016, 「하남 금암산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_____, 2018, 「하남 금암산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약식보고서」
翰林大學校博物館, 1988, 『여주 매룡리 용강골고분군 발굴보고서』
_____, 1989, 『여주 매룡리 용강골고분군 발굴보고서Ⅱ』
_____, 2001, 『여주 상리 고분(94·97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한성백제박물관, 2017, 『서울 방이동고분군 3호분 발굴조사 약보고서』
漢陽大學校博物館, 1991, 『二聖山城三次發掘調査報告書』
강봉원, 2000, 「한강 유역 황혈식 석실분의 성격 :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先史와 古代』제15호, 한국고고학회.

- 강태홍, 2019, 「하남 감일동 백제고분군의 발굴조사 개요와 성과」 『하남 감일동 백제고분군의 위상』 하남역사박물관 하남 역사정체성 찾기 학술대회.
- 강현숙, 1996, 「百濟 橫穴式石室墳의 展開過程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34, 한국고고학회.
- 권오영, 2008, 「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한국고고학회.
- 김기범, 2004, 「한성시기 백제 황혈식석실분의 수용」 『百濟研究』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명진·성기석, 2019, 「목탄과 인골의 탄소연대측정치가 지시하는 방이동 3호분의 연대」 『교류와 교통의 고고학』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金元龍, 1974, 「百濟初期古墳에 대한 再考」 『歷史學報』 62.
- 김종구, 2017, 「충주지역 누암리·하구암리 고분의 위계분석」 『신라사학보』 40, 신라사학회.
- 김지현, 2017, 「한강유역 황혈식석실분의 계통과 축조유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7a, 「漢江流域 新羅古墳 研究: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7b,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구조와 성격」 『先史와 古代』 제27호, 한국고대학회.
- _____, 2008, 「한강유역 신라고분의 전개과정」 『白山學報』 第79號, 백산학회.
- 金昊鎭, 1999, 「新羅 橫穴式石室墳 研究-慶州地域과 漢江流域의 比較」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재범, 2019, 「감일동고분군 출토 중국계 유물의 계통과 편년」 『하남 감일동 백제고분군의 위상』 하남역사박물관 하남 역사정체성 찾기 학술대회.
- 박보현, 1987, 「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 『嶺南考古學』 4, 영남고고학회.
- 박진혜, 2014, 「경주지역 황혈식석실묘 연구」 『考古廣場』 제15호,釜山考古學會.
- 성정용, 2009,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황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 성정용·박신영, 2019, 「하남 감일동고분군의 석실구조와 축조집단」 『하남 감일동 백제고분군의 위상』 하남역사박물관 하남 역사정체성 찾기 학술대회.
- 오재진, 2008, 「충주지역 신라 석실묘의 구조와 계보」 『연구논문집』 제4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尹星鎬, 2017,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현, 2019, 「서울 방이동고분군 3호분의 구조와 편년」 『교류와 교통의 고고학』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李承勳, 2009, 「考古資料로 본 6~7世紀 新羅의 漢江流域 支配」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李賢淑, 2013, 「漢城地域 百濟 橫穴式石室墓 研究-서울 방이동·가락동 석실묘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제10호, 백제학회.
- 조가영, 2012, 「석촌동 고분군의 축조 양상 검토-고분 분포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75

- 號,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8, 「한성기 황혈식석실분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 고분문화와 백제 왕릉의 위상』 2018 백제역사유적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한성백제박물관.
- 주보돈, 2006,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北方史論叢』 11호, 동북아역사재단.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_____, 1997, 「서울 江南地域 石室墳의 性格-新羅의 地方石室墳 研究(1)」 송실사학 10, 송실대학교 사학과.
- _____, 2012, 「경주지역 신라 황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83, 한국고고학회.
- 한지선, 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中央考古研究』 第12號, 中央文化財研究院.
- _____, 2019, 「감일동 고분군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직구호를 중심으로-」 『하남 감일동 백제 고분군의 위상』 하남역사박물관 하남 역사정체성 찾기 학술대회.
- 咸舜燮, 2012, 「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보식, 1993, 「百濟 橫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對外傳播에 관한 研究」 『博物館研究論叢』 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 _____, 2009, 「고고학으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지배방식」 『百濟研究』 제50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皇甫慶, 2007, 「한강유역 신라고분의 현황과 특징 연구」 『文化史學』 27號, 한국문화사학회.
- _____, 2009, 『신라 문화 연구-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류성.
- _____, 2017,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5, 한국고대사탐구회.
- 황인호, 2013, 「탐평리유적과 신라」 『충주 탐평리유적의 발굴과 그 의의』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황중현, 2020, 「신라 황혈식석실묘의 수용과 전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illa's Advance into the Han River Region and the Spread of Stone Chamber Tombs

Hwang Jonghyeon*

Silla advanced into the Han River region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in order to maintain stable interaction with China. In order to facilitate efficient control over the Han River region, secondary capitals (sogyeong) and new provinces (sinju) were established in, and people from the capital relocated to, the regions of present-day Chungju, Yeosu, and Seoul, which were important locales at the time. Numerous burial grounds where stone chamber tombs were used as the main tomb type have been investigated in these areas. Of these, those located within Seoul have been the subject of debate with regard to the identity of the groups that built them.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stone chamber tombs investigated in Seoul and those from Gyeongju, with focus on their situation within the landscape, structural elements, and grave goods. In addition, an examination was also undertaken on the structure and grave goods of Baekje stone chamber tombs of the Hanseong phase that have recently been excavated at Seokcheon-dong and Bangi-dong in Seoul and the Gamil-dong burial grounds in Hanam.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burial grounds of Chungju and Yeosu were highly similar to those of Gyeongju in terms of their location within the landscape, the clustering of tombs, and grave goods. In the case of the burial grounds of Seoul,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stone chamber tombs of the recently excavated Bangi-dong burial grounds, and of the Geumam-dong and Deokpung burial grounds located near Yiseongsanseong Mountain Fortress in Hanam, could clearly be distinguished from the stone chamber tombs of the Gamil-dong burial ground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Hanseong Baekje period tombs) in terms of tomb structure and grave goods.

It is therefore possible to establish that the tombs of the Nuam-ri and Haguam-ri burial grounds in Chungju, the Maeryeong-ri burial ground in Yeosu, and the Bangi-dong burial ground and the burial grounds located near Yiseongsanseong Mountain Fortress were Silla stone chamber tombs constructed after the mid-sixth century, accompanying Silla's advance into the Han River region.

Key words : Silla, Stone chamber tomb, Advance into the Han River region, Local area, Spread

* Samseonghyeon History and Culture Center